

도시가 '착하다' 고? 서구에서 답을 찾다

자치CEO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우리 서구의 도시 브랜드는 '착한도시'다. 착한가격, 착한가게, 착한운전, 착한소비, 착한드라마 등 '착한'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옳고 정직한 가치를 담은 통용어로 자리잡았다. 정치적·사회적으로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요즘, 선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좇는 사람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우리 서구는 이 가치를 도시 전체에 담아내고 있다.

착한도시 서구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시대 3대 부호 중 한 명이었던 회재 박광옥 선생(서구 매월동 출신)은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의병도장을 설치해 무기와 군량을 조달하면서 나라를 지켜냈다. 또 가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개산방죽(현 전평제)을 만들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후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의 후손인 박희진 선생도 '서구 맨발로(路)' 조성에 자신의 사유지를 기꺼이 기증했다.

착한도시 서구는 1980년에도 빛을 받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양동시장 상인들은 십시일반 쌀과 돈을 모아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지어 나눠줬고, 이러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는 세계가 주목하는

광주정신의 근간이 됐다.

우리 서구는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착한행정, 착한정책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를 개통해 생활민원을 48시간 안에 해결해주고 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춰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문자 하나로 구청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무조건 악부터 지르고 보자는 식의 악성민원이라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서구를 대표하는 천원국시와 맨발로(路)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낸 저예산 고효율 정책이다. 어르신, 1인가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국수 한그릇을 천원에 판매하는 '천원국시'는 양동을 시작으로 현재 6호점까지 문을 열었으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매장 안에 누구든지 음식을 채워넣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나눔냉장고도 큰 인기다.

서구는 맨발의 성지이기도 하다. 현재 18개 동 전체에 맨발 산책길을 조성했고 마을 근린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맨발로 걷고 싶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구 금당산 1~2구간에 왕복 8.2km의 맨발로를 조성해 지난 5월 호남권 최초로 도심맨발축제를 개최해 행사 당일 2000여 명이 금당산을 다녀갔다.

착한도시 서구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구는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의료와 돌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했다.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학업, 직장 등 꿈을 포기해야 했던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수당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착한도시 서구의 주인공은 주민들이다. 우리 서구는 선한영향력을 가진 마음부자들이 함께 완성하는 '오잇길'이 있다. 참가비 오(5)천원을 내고 이(2)웃들과 희망을 나누며 광주전면 5.2km를 걷는 행사다. 1회 행사는 1000여 명이 십시일반 600만원을 모았고, 2회 행사는 1600여 명이 860만원을 모아 가족돌봄청년들을 후원했다. 또한 골목상권을 이끄는 착한가게들은 매출액의 일정액(월 3만원 이상)을 지속 기부하고, 서구는 돌봄이웃 1000세대에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착한쿠폰을 발행해 선순환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착한기업들도 발벗고 나섰다.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영역과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민관협력 커플링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착한가게가 번창하며, 착한기업이 성공하는 세상. 이 당연한 명제가 '착'이라는 것을 착한 서구민이 함께 증명해내고 있다. 착한도시 서구의 아이들은 권선징악이 동화책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청소년 전동킴보드 운행 문제점 및 위험성, 관련 법규 등 알리기 위해 도내 중·고교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 발생 위험율이 높고 전동킴보드 이용자가 많은 일부 구간을 특별관리 구간으로 지정해 단속 및 관리 강화할 것이다. 청소년 전동킴보드 운행에 대한 경찰의 현장 지도·단속 강화와 더불어 가정과 학교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통한 사고예방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병준 <전남형 기동순찰대 경사>

기고 김상율 광주시 인사정책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3요 주의보'로 기성세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3요란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되묻는 젊은 직원들의 반응을 일컫는 신조어다. 과거에는 속으로 투덜거리더라도 차마 입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을 요즘 세대들은 입술에 힘을 주고 한 글자, 한 글자씩 토박토박 내뱉는다.

이른바 요즘 젊은이인 MZ세대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경직된 조직문화를 거부하고 위계적 질서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선호한다. 한편으로 눈만 높고 개인주의가 심해 이기적이라는 불멘소리도 있다. 이들을 보고 있다면 그러하지 못했던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는 전혀 다른 종의 인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 MZ가 있다면 딱 10년 전인 2014년에는 '미생'이 있었다. 생소한 바둑용어가 사회초년생의 직장생활 적응기와 애환을 담은 드라마 제목으로 쓰이면 서 큰 인기와 함께 그 당시 젊은 세대를 표현하는 대표 단어가 되었다. 미숙하지만 노력과 성실함을 무기로 세상과 부딪혔던 많은 미생의 사회초년생에게 '이거 내 이야기다'라는 공감을 받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목록하고 치열하게 버텨낸 미생이든, 지금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MZ든 누구에게나 결코 가볍거나 사소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유행처럼 번진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떠나 최소한의 업무만 하려는 '조용한 퇴사'는 직장의 고단함에서 태어난 그들만의 자기방어가 아닐까.

바뀐 것은 세대가 아닌 시대일지 모른다. '우리'가 중심이던 세상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세상으로 변화했다. 더 이상 회사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가 아니다. 자부심만 가지고 일하던 시기는 지났다. 일과 개인의 삶을 나누어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좋은 직장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한때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였던 공무원의 인

기가 예전만 못하다. 경직되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공직을 떠난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이 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MZ세대를 피해야 할 혹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 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는 물음에 업무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 왜 자신이 업무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답을 주어야 한다.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더불어 일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나의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과거처럼 공직에 대한 봉사하는 소명의식과 사명감, 자부심만으로는 그들을 붙잡아 두기 어렵기에 광주시도 새내기 공무원들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먼저 신규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공문서 작성법, 민원응대법 등 업무에 관한 것부터 휴가, 급여, 후생복지 제도 등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보기에는 망설여지는 것들을 선배 공무원의 노하우를 더해 한 권에 담아내었다.

올해는 '청년 공무원, 세계로' 정책연수를 새로 시행해 시정현안의 성공적 추진과 동시에 청년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임용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대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2024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제 105명의 인재들이 광주시로 공직의 첫발을 들여놓는다. 각자의 마음속에 부푼 꿈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꿈이 꺾이지 않도록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무겁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걸으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드라마 속 명대사를 전하고 싶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독자투고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 근절돼야

전국적으로 전동킴보드(p-m, 개인형 이동장치) 열풍이다. 조작이 쉽고 편리하며 아무 장소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점 많아 젊은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증가 추세다. 이렇다 보니 전동킴보드 운행 대수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으로는 △보도 주행 금지 △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 안전모 착용 등이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청소년의 전동킴보드(p-m) 무면허 운전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하교시간, 주말에 도로 곳곳 면허 없이 전동킴보드 타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대부분 휴대폰 앱으로 이용하다 보니 아무런 제재 없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